

다산포럼



고 세 훈
고려대 명예교수

중세는 엄정한 신분 사회였지만 관계의 진밀성이 제도화됐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전통도 중세 천년의 역사가 만든 관행에 빚진 것이었다. 기독교적 세계관이 지배했던 시절이라, 사회는 신체나 가족이 그런 것처럼 하나의 전체로 엮인 유기체였다. 전체의 유지를 위해 행하는 기능에 따라 역할이 주어졌던 개인은, 신이 부여한 위계질서 속에 태생적으로 편입됐다. 위와 아래는 상호적 책무에 묶여 있었으니, 아래는 노동으로 위에 봉사하고, 위는 외적에 맞서 앞장서 싸울 뿐 아니라 최소한의 복지를 공여함으로써 아래의 생존을 지켜 냈다.

중세를 암흑으로 채색한 것은 계몽주의 세례를 받은 18세기 유럽 문명이었다. 개인과 이성을 기치로 내건 정신이 계시를 앞세운 신적 질서를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신분적 족쇄가 해제되면서 관계의 진밀성 또한 사라지자, 이제 개인들은 시장 질서(cash-nexus)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생존을 스스로 책임지는 고독

친밀함, 가해와 위선의 그늘

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하여 중세적 질서로의 향수가 고독한 보수주의에는 인간의 본래적 불평등에 대한 승인과 더불어, 저 ‘평등 없는 친밀성’(intimacy without equality)을 관계의 중심에 복원하려는 열망이 담겨 있었다. 서유럽 보수 정당들이 진보 계열 정당을 못지않게 복지 국가 발전에 기여해 온 맥락도 이 점에 닿아 있다.

조지 오웰의 죄의식과 속죄

그럼에도 불구하고(시대·부역·세금 등 농노 계급의 탈취가 일상적이었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중세 사회의 친밀성이 권력적 위계를 전제했다는 점만은 바뀔 수 없다. 가령 오늘날에도 영국 중산층이 가장 애송하는 시인 리디어드 키플링이 영국 제국주의를 옹호하며 주창했던 ‘백인의 책무’(white man’s burden) 개념에는 제국인들이 현지인들을 향해 품었던 일상의 친밀성과 더불어 인종과 신분에서 기인한 불평등의 정서가 두루 서려 있다.

‘평등 없는 친밀성’이란 조어가 문학적 답론에 등장한 것은 펠론가 크리스토퍼 홀리스가 친구인 작가 조지 오웰의 사상과 작품을 들여다보는 하나의 장치로서 배치하면서였다. 이튼의 우등생이었던 오웰은 그곳 졸업생들이 통상 거치는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로의 진학을 포기하고 식민지 버마(미얀마)의 제국 경찰을 자원하지만, 5년이 채 안 돼 사직서를 던

지고 영국으로 영구 귀국한다. 가해의 최전선에서 백인 경찰로서 경험했던 죄의식과 수치심이 커갈수록 제국 체제에 대한 증오와 무력감을 못 견뎠던 탓이다. 영국인과 현지인 간의 일상적 친밀함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의 틀 안에서 이 둘 사이의 진정한 우정은 불가능했으니, ‘평등 없는 친밀성’이 지난 본래적 한계를 절감했던 것이다.

그에게 버마 체험은 가해자 입장에서 권력의 실상을 들여다본 첫머리이자 마지막 기회였고, ‘부끄러워해야 할 무엇’으로서의 권력 개념을 내면화하는 전환적 계기였다. 이후 오웰의 삶과 글쓰기는 버마 시절 형성된 죄의식의 속죄와 해원을 위한 긴 여정,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삶 속으로 내려가 그들의 일원이 됨으로써 인간관계의 친밀함 배면에 피려를 띤 권력관계의 폭력성을 파헤치는 일에 바쳐지게 될 터였다.

권력의 속성과 사람의 품위

관계의 친밀함은 공감에 축적되는 과정. 대체로 일상을 공유함으로써 형성된다. 실은 일상은 관계 속에서 공유되기 이전에 그 자체로 우리 몸과 공유를 곁들이는 다. 반대 성욕자의 연쇄 살인을 다룬 헝가리 영화 ‘누명’에서 교수대로 끌려가는 범인은 ‘신발이 너무 조여’ 답답하다고 불평하며, 오웰이 버마 시절을 배경으로 쓴 에세이 ‘교수형’에는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도 물웅덩이를 애써 피해 가는 죄수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처럼 일상은 때로 죽음마저 잇게 만드는 괴력을 지닌 것이지만, 문제는 일상의 친밀성이 관계의 폭력성을 은폐하는 경우다.

가령 최근 문화 예술계 전반에서 폭로된 온갖 범죄적 행위도, 술자리·합숙·촬영 여행 등 예속 행위를 빙자하거나 그 연장으로 일상화된, 다분히 작위적인 관행들(routines)의 친밀함-“너 참 굵구나. 어디 이리 와 봐라!”-속에서 자행됐다. (하긴 ‘구조의 큰 그림을 보는 통 큰 사람들’에게 사적 윤리나 개인의 고통 따위는 얼마나 거창장스런 것이었으랴) 모든 해계모니적 권력이 행사하는 내밀한 폭력들을 가장 예민하게 포착해 경종을 울려야 할 사람들이, 술선해서 친밀성의 그늘을 치는 가장 교활하고 가증스러운 방식으로 가해의 검을 휘두른 것이다.

대학 졸업장이 없던 오웰에게 평생 스스로 부를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는 오로지 낮은 타자기와 완강한 신념에 기대 홀로 주류적 편견에 맞서 싸웠다.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악의 평범성’은 우리 모두 잠재적 범죄자라는 섬뜩한 사실을 일깨우지만, 실제 폭력은 크고 작게 일상에서 이미 적나라하다. 기어이 차이를 만들고 우월한 지위를 확인한 후라야 비로소 친밀함을 용인하되, 그 친밀함의 그늘에 숨어 끝끝내 폭력적 근성을 드러내고 마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다. 오웰에 따르면, “사람은 권력이 없을 때만 품위가 있다.”

교단에서



김 진 구
울산중 교감

방학이어서 국립광주박물관 뒷산인 매곡산에 몇 번 올랐다. 능선 따라 소탈하게 난 길을 왕복으로 걸으면 신이 리듬 된다. 도심이 품고 있는 산치고는 수종이 다양하다. 햇볕이 들지 않을 정도로 뻗은 편백나무 숲이 참으로 오지다. 크기로 보아 30여년 정도 되는데 누가 무슨 목적으로 심었는지는 모르지만 때때다 갑작한 마음이 절로 든다. 오리나무는 지난해 씨앗방울을 매달고 있었으나도 벌써 새로운 꽃눈과 잎눈을 통통히 만들었다. 굴참나무 다갈색 잎은 가지에 남아 사각 거린다. 낙엽송 중에 가장 오래 머물다가 새싹과 교태한다.

겨울나무의 숨소리는 날선 바람으로 들려왔다. 원래 야트막한 산이지만 아파트, 공단 건물로 둘러싸여 점점 사람들이 만든 구조물에 갇혀있는 형세다. 산을 오

사피엔스의 뒷

르는 사람들의 모습도 여러 가지다. 겨울산은 적막함이 참맛인데 뉴스나 노래를 큰소리로 틀고 간다. 잠시도 속세와 끊지 못하는 질긴 연연이다. 두 개의 스틱으로 활기차게 오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발발에 펼쳐진 완고한 도시의 조직에서 쫓겨온 것처럼 보였다.

인류가 약 1만 년 전까지는 수렵이나 채집으로 상당히 편안하게 살았으나, 이후 밭을 재배하면서부터 세계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동틀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밭을 돌보는 일에 매이게 되었다. 수렵 채집인이 농부가 된 것이다.

밀 재배는 쉽지 않았다. 경작지를 만들기 위해 들을 개척이 쉬웠다. 영양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온종일 잡초를 뽑아야 했다. 병해충과 토끼와 매뚜기 때를 막아야 했고, 거름을 만들어야 했고, 가뭄에 물을 길러야 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에 사람들은 밭밭 옆에 정착해야만 했다. 생활의 모형이 바뀌었다. 잡초 중 하나일 뿐이었던 밀, 쌀, 감자가 주된 식량이 되면서 역사적으로 이들이 인간을 길들인 것이다.

한 곳에 정착하여 재배하는 농업 혁명으로 식량의 총량이 늘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이 여분의 식량이 더 나은 식사나 더 많은 여유 시간을 주지는 않았다. 오히

려 인구 폭발과 다툼과 방자한 엘리트를 낳았다. 어느 종이 성공적으로 진화했는지는 풀주립이나 고통의 정도가 아니라 DNA 복사본 개수로 결정된다. 회사의 경제적 성공은 직원들의 행복이 아니라 은행 잔고의 액수로 측정되는 것처럼. 농업 혁명은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 있게 만들었다. 자연과의 긴밀한 공생을 내던지고 탐욕과 소외를 향해 달려간 일대 전환점이었다. 이것이 농업 혁명의 뒷이다.

앞으로도 인간이 집단의 힘을 키우고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개개인의 큰 고통과 나란히 진행되었는 것을 거듭 확인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과학 혁명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기들이 발명되어 과거에 비해 노동과 시간을 절약했지만 우리가 좀 더 느긋한 삶을 살고 있는가?

윌킨은 전염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에서 인류 초기 농업 혁명 부분을 요약해본 것이다. 600쪽의 두꺼운 책이지만 단숨에 읽히는 놀라운 독서 체험이었다. 인간의 역사를 아주 쉬운 문장으로, 이렇게 절묘한 비유들로 표현할 수 있을까. 페이스북 설립자 저커버그는 이 책을 “인간 문명에 관한 위대한 역사적 저술”이라고 소개했다. 인간의 역량은

늘어났지만 개별 사피엔스의 행복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동물들은 역사상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었다면서 엄격한 채식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하라리. 그가 그리는 인간의 미래는 어두웠다.

새 학기 신입생을 배정받았다. 새로 맞이할 학생이 94명이다. 5개 학급 편성이니 한 반에 20명이 되지 않는다. 2년 연속 한 학급씩 줄었는데 금년에는 학급 감축 대진 학급당 학생 수가 줄었다. 광주도 지역에 따라 전일 인구가 늘어나서 포화 상태인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드니 매년 학교 통폐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농어촌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백 년의 역사를 가진 광주 어느 초등학교 새 학년도 신입생은 6명이다. 이제는 신흥 주택 단지를 제외하고는 도농 가릴 것 없이 맞이하는 현상이다.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문구에 익숙한 우리 세대가 뿔스스의 창고간 ‘인구론’을 맞고 있다. 농협의 창고는 묵은 쌀로 가득하지만, 신입생 환영 플래카드가 내걸린 교문은 더 이상 북적이지 않는다. 교무실에 선생님이 떠난 빈 의자도 쓸쓸하게 늘어간다.

기 고

태극기 아래 하나 된 빛고을 광주를



박 중 호
광주시 행정지원과장

우리나라에서 열린 최초의 동계올림픽이자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만에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평화와 화합의 장소로 성공리에 마무리되고 패럴림픽을 남겨 두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수년간 오직 시상식장에 서는 한 순간을 위해 쏟았던 땀과 노력의 결실을 맺고 정경당당하게 경기에 임하였으며 그 선수들의 몸짓 하나하나에 온 국민의 시선이 쏠렸다.

시상식장에 올라 퍼지는 애국가와 함께 당당하게 올라가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경기를 마친 선수들 그리고 이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관중들의 손에 쥐어진 태극기 아래 우리 모두는

하나됨을 느꼈다. 메달 획득 여부를 떠나 그 순간 태극기는 국가이자, 국민이었고, 바로 우리였다. 지난 2002년 빛고을 광주에서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냈던 그날, 거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힘차게 외치며 나머지 한 손에 어김없이 들려있던 태극기 아래서도 우리는 하나가 됐다.

지금으로부터 99년 전 3월 1일. 그날도 우리 민족은 태극기 아래 하나가 됐다.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한 일본은 경제, 문화,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폭력적인 억압과 수탈을 자행했으며 우리의 민족정신마저도 말살하기 위하여 온갖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이러한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지 지배에 결코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안으로는 끊임없이 항일운동을, 밖으로는 국제 사회에 일제의 조선 강점의 불법성과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가열차게 전개해 나갔다.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에도 자주 독립의 염원을 담은 태극기를 손에 들고 결연하게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날. 한반도에 들불같이 퍼졌던 최대의 민족운

동인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비롯한 우리 민족의 역량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결집시키는 계기가 됐다.

또한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이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광주학생독립운동 등 수많은 국내·외 항일 독립운동의 원동력이 된 것은 물론 결국에는 우리나라 자주 독립의 기틀이 됐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광주시에서는 오직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국권 회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러한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3·1 독립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오는 3월 1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99주년 삼일절 기념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당일 정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민주의 종각에서는 ‘민주의 종’ 타종식이, 광산구 고려인마을에서는 그 날의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하는 기념행사가 열리고, 많은 시민이 참가하는 3·1절 기념 마라톤대회도 예정되어 있다. 또한 동구에 위치한 광주 백범기념관에서는 3·1독립운동 의복 체험, 태극문양 떡 만들기 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기념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공

동체가 걸어 온 발자취인 역사를 잊은 민족이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지 못한채 쇠락의 길을 걷거나 아픈 역사를 반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너무나 자랑스럽게도 국가적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를 극복하고 거뜬히 이겨내 왔다.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탈에도 온전히 나라를 지켜냈으며, IMF 외환 위기 때도 또한 그러했다.

이제 이러한 자랑스럽고 당당한 우리들의 발자취를 밀바탕 삼아 더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뒤는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기 모두가 함께 걸을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때다.

그러기 위해서 다가오는 3·1절에는 집결마다 태극기를 게양하고, 미래의 주역인 자녀들과 함께 기념식장, 행사장 등을 찾아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나라의 소중함을, 그리고 99년 전 그날처럼 태극기 아래에서 하나됨을 함께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社說

야당도 성범죄자 배제 등 공천 기준 강화해야

자고 나면 어김없이 또 한 사람의 성범죄자가 사람의 입살에 오른다. 붓물 타지듯이 각계의 성폭력 피해 사례들이 폭로되고 있다. ‘미투’(me too), SNS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며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 운동의 끝이 보이지 않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아마도 지금 잠 못 이루며 언젠가 터질지 몰라 떨고 있는 권력자들과나 지도층 인사들도 많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및 재보선 후보 공천과 관련, 성범죄자와 병역법 위반자를 예외로 배제 대상으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당 지방선거기획단이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검증 기준을 반영해 만든 초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예외로 배제 기준을 만든 것이다.

특히 성폭력·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초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하기로 했다. 성폭속 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

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에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 판결’로 부적격 기준을 강화했다. 살인·치사·강도·병화·절도 등 강력 범죄와 뺑소니 운전의 경우도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기로 했으며 무면허 운전 에 대해서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 기준으로 정했다. 탈당과 관련해서는 경선 때 자신이 받은 점수를 기준으로 20%를 감산하기로 했다.

그동안 각 정당들은 후보 검증을 치밀하게 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각종 비위에 연루된 인사들이 선출직에 당선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강화된 예비후보자 검증 기준은 만사지단이지만 환영할 일이다. 민주당이 엄격한 검증 기준을 제시한 것은 해당 후보는 이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말라는 의미일 것이다. 다른 야당들 역시 당장, 명확하고 엄정한 검증 기준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영암 하수관로 사업 몰아주기 의혹 규명을

영암군이 추진하고 있는 100억 원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같은 대학 소속 선정위원들이 특정 업체에 높은 점수를 몰아주고 나머지 경쟁 업체에는 낮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순위를 조작했다는 게 입찰 참가 업체들의 주장이다.

영암군은 환경부가 공모한 117억 원 규모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공사에 나선다. 군은 지난해 5월 전체 보수와 부분 보수 등 두 개 부문으로 나눠 입찰 공고했고, 각각 열한 개 업체와 세 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어 심의 결과 두 개 사업 모두 부산에 기반을 둔 C업체가 선정됐다. 이에 일부 탈락 업체들은 성격이 다른 두 개 사업을 특정 업체가 독식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으로, 특정 심의위원과 사전 접촉 및 몰아주기가 있었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광주일보가 입수한 위원 여섯 명의 재정표를 보면 전체 보수 부문에서 특정 대학 A교수는 C업체에 여덟 개 항목 모두 ‘수’를 줬다. 같은 대학 동일 학과의 B교수 역시 C업체에 ‘수’ 여섯 개, ‘우’ 두 개를 줬다. 부분 보수에서도 A교수는 C업체에 사실상 최고점인 ‘우’를 몰아줬고 B교수는 같은 업체에 ‘우’ 여섯 개, ‘미’ 두 개를 줬다. 이는 나머지 네 명의 위원이 수·우·미·양을 섞어 고르게 평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더욱이 영암군은 선정위 구성 때 학교별로 한 명을 뽑도록 한 전남도의 규정을 무시하고 두 개 대학에서 같은 학교 소속 교수 두 명씩을 선정해 논란을 자초했다. 해당 교수나 업체는 점수 몰아주거나 사전 접촉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참가 업체들의 지적에 타당성이 있는 만큼 상위기관의 감사나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일대는 과거에 ‘사구시’라고 불렸던 곳이다. 사기 시장을 뜻하는 ‘사기시’(沙器市)에서 변형된 말이다. 지명에서 미루 짐작할 수 있듯이 이곳에는 도자기를 빚던 가마터가 밀집해 있었다. 실제로 2000~2001년 발굴 조사 결과 고려청자 가마터 5기와 분청사기 가마터 25기가 밀집 분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청사기는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를 이어 주는 징검다리와도 같은 양식이다. 시기적으로는 14세기 말에서 16세기 초까지 150여 년간 만들어졌다. 분청사기는 특히

그의 저서에서 분청사기를 이렇게 예찬한다. “고려청자에 바탕을 둔 분청사기의 기법은 한층 대범해지고 민중적이었으며 서민적이었다. ..상상의 날개가 자유스럽게 활개 친 ‘치기’의 아름다움이 곧 분청사기의 아름다움이다. 또한 무한한 해석이 가능한 추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흙집 없는 완전한 형태의 분청사기보다 도공이 가마에서 꺼낸 후 패기한 사 금파리에 눈길이나 오래 머무는 가마터에서는 특히

고흥 운대리 끝자락에서 흙을 빚던 무명의 도공들에 의해서 찬란한 꽃을 피웠다.

지나해 10월 개관한 ‘고흥 분청문화 박물관’은 운대리에서 빚어졌던 다양한 분청사기들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운대리산 분청사기를 대표하는 기법은 ‘귀알’과 ‘담방’이다. 붓(귀알)을 사용해 그릇 표면에 백토를 입히거나, 백토를 풀 위에 그릇을 담가서 분장(澆粧)하는 것이다.

한국미의 본질을 천착한 미술사가 해극 최순우(1916~1984) 선생은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라는

10m 길이의 커다란 벽을 이루고 있다. 겹겹이 쌓인 사그마리를 보노라면 시공을 초월해 500여 년 전 도공들의 땀과 눈물, 혼이 느껴진다. 분청문화박물관에서는 개관 기념으로 2월말까지 ‘두원 운석’도 전시하고 있다. 1943년 11월 23일 고흥군 두원면 성두리에 떨어졌던 운석이다. ‘대한민국 우주 항공수도’를 자부하는 고흥의 소중한 유산이기도 하다. 박물관을 찾아 분청사기의 매력과 우주의 신비로움에 푹 빠져 보시라! /송기동 예방부장 song@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 | 주필 李洪載 | 편집국장 金日煥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가11번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 |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
| 편 집 부 220-0649 |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 무 국 220-0551 (FAX 227-9500) |
| 정 치 부 220-0632 | 문화미디어부 220-0664 | 다 지 인 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 |
| 사 회 부 220-0642 | 체 육 부 220-0697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사 회 2 부 220-0652 | 사 진 부 220-0693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